

“물가 2%대까지 낮아질 것...연말엔 3%”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5월 3.3%...올해 중반 2%대 예상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하게 둔화하다가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다.

◆ 상반기 물가 상승률 4.2%...근원물가 둔화 속도는 더디

올해 상반기(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4.2% 올라, 지난해 하반기(5.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연초

5.2%에서 5월 중 3.3%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다만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 물가 변동 요인으로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 영향이 우선 꼽힌다. 작년 하반기에 만 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올해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안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작년 하반기 0.72%포인트에서 올 상반기 -0.50%포인트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 유가 상승에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올랐다. 전기요금(1월, 5월)과 도시가스요금(5월) 인상에 따라 전기·가스·수도요금의 작년 하반기 기여도는 0.63%포인트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0.88%포인트로 내렸다.

식료품·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작년 말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둔화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이다. 올해 1월 4.1%였던 근원물가는 5월에는 3.9%로 2%포인트(p) 내렸다.

근원물가 내 품목별로 살펴보면, 집세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품과 집세를 제외한 서비스는 경직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리물가를 제외한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 측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근원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중국 경제·통화 긴축 강화 우려...향후 불확실성 높아

하지만 올해 이후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말경에는 3% 내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향후 국제유가 추이와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정도 등에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근원물가의 경우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는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의 재급등을 꼽았고, 하방리스크로는 국제유가 하락폭 확대와 국내외 경기 둔화세 심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제시했다.

국제유가는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계절적 수요 등으로 완만한 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주요국 경기 부진 지속, 통화 긴축 강화 우려 등이 하방리스크로 잠재해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

전남, 조사료 안정생산·공급 기반조성 1070억 투입...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전남도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사업에 국비 357억원을 포함해 총 1070억원을 투입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조사료 재배 면적은 6만ha로 전국 조사료 재배·수확에 필요한 트랙터, 결속기, 콤팩트기 등 장비의 36%를 차지한다. 도는 올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60억원’, ‘기계·장비 구입 142억원’, ‘조사료 종자구입 84억원’, ‘퇴·액비 32억원’, ‘가공·유통시설 39억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90억원’, ‘임모종 파종 12억원’, ‘품질관리 7억5000만원’ 등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6만ha에서 생산한 100만t의 조사료 제조비를 자가소비용과 유통판매용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자가소비용은 1ha당 동계는 114만원(당 6만338원), 하계는 221만

원(당 6만338원)을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1ha당 430만원 지원하고, 수확에 필요한 사일리지 제조비 등으로 1ha당 221만원을 지원한다.

또 조사료 기계·장비 사업을 통해 조사료 재배·수확에 필요한 트랙터, 결속기, 콤팩트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농가에 100만원(보조 18억원), 유통센터 시설에 9억원(보조 5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선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된 담양축협, 고흥명품화사업단 가공시설엔 30억원(보조 18억원), 유통센터 시설에 9억원(보조 5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국 최초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함평축협엔 국비 54억원을 포함한 180억원을 지원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권형안 기자

㈜파루 ‘인터솔라 유럽’서 ‘신규 단축추적식 트랙터’ 선보



순천산단에 소재한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루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3 인터솔라 유럽’ 전시회에 참가해 신규 단축추적식 트랙터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인터솔라 유럽’ 전시회는 미국의 SPI, 중국의 SNEC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전시회 중 하나다.

㈜ 파루의 단축추적식 트랙터는 태양의 일출과 일몰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추적하며 발전을 하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고정식 태양광발전시설 대비 15% 이상의 높은 발전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파루의 신규 단축추적식 트랙터는 15% 경사각에도 설치가 가능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단축추적식 구조물 1세트에 최대 90m, 총 160장의 모듈을 설치할 수 있고 태양을 60도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량과 설치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태풍이나 재해 발생 시 자동으로 모듈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어 바람과 돌풍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폭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스노우 모드, 발전효율을 높여주는 백트래킹 모드 등도 장착돼 있다.



한손에 쏙 해남 애플수박 맛보세요 한손에 쏙 들어오는 해남 애플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애플수박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밭에서 재배해 12브릭스 이상 당도가 높고, 15~2kg 내외의 크기로 최상급의 상품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진은 해남 옥천면 백호리 서명기 농가. /해남군 제공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20~23일 서울 목동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자 5000원 할인권 제공

전남도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서울 목동아파트 2단지과 14단지에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직거래장터에선 여수 돌산갓김치, 순천 된장·고추장, 광양 매실, 곡성 멜론·잘육수수, 고흥 마늘, 보성 감자, 무안 양파 등 전남 시·군에서 생

산한 제철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 청정바다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한 영광 굴비, 완도 전복, 고흥 김, 미역, 다시마, 건어물, 신안 전일염·새우젓 등 수산물도 함께 선보인다.

전남도는 지역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참여 유도를 위해 서포터즈 가입자에게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직거래장터 이후에도 전남 농수특산물을 꾸준히 구매할 수 있도록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10만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목동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전남에서 생산하고 전남도지사 추천’ 하는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수여

광주전남중기청, ㈜아이시스·(주)엠이시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아이시스와 ㈜엠·이·시를 방문해 지정서 및 환관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원사업은 500만불 이상의 수출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해외 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아이시스는 북중유리 자동화 생산설비 및 유리가공설비 업체로서 유리산업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산체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으로, 작년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2009년 100만불 수출탑 수상, 2012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2017년 벤처기업 확인, 2020년 300만불 수출탑, 2022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엠·이·시는 광양 신금산단에 2000년 설립했으며 도금제품, 공정 기술 및 설비 등 토탈출수련을 제공하는 수출전문기업이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 포스코 우수공급사 선정, 2019년 500만불 수출탑 수상, 2020년 전남 스타기업에 선정되는 등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도 함께합니다. /권형안 기자

김영집 광주TP원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광주테크노파크는 김영집 원장이 19일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환경부 주관의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지난 2월 부터 시작된 캠페인으로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손동작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며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범국민적인 실천 운동이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의 지목을 받은 김영집은 지난 3월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발전을 약속하며 생활 속 실천을 이어온 가운데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통해 다시 한번 ESG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영집은 “공공기관으로서 일상 생활에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절약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챌린지 다음 주자로 신웅진 한국광기술원 원장을 지명했다. /권형안 기자

포스코 모바일로봇 기술개발

포스코가 근로자 안전과 체계적인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로봇 기술개발에 나선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공정연구소는 로봇솔루션연구그룹, 위드 로봇, 에이딘로보틱스와 각각 스마트 와이어 로봇솔루션 및 4족 보행로봇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맺었다.

위드로봇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와이어 로봇은 영상, 음향, 열적외선, 라이다와 같은 다양한 센서를 모듈로 장착한 뒤, 케이블카처럼 줄을 타고 이동하면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를 감시하고 찾아내는 로봇이다.

현대차그룹, KTC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인증센터 설립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도 개발 표준화 된 충전품질 평가 항목 도입



19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본관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개소식이 열렸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손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했다.

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KTC 본관에서 김홍수 현대차 GSO(글로벌전략) 담당 부사장, 안성일 KTC 원장, 진중욱 국가기술표준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CQV 개소식을 진행했다.

현대차그룹과 KTC는 이르면 연말부터 E-CQV를 통해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충전기 내구성·신뢰성, 실충전 성능, 보안성, 통신 적합성, 전자파 적합성 등 5가지 표준화된 품질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오픈해 운영된다.